

미케쓰쿠니 와카사 오바마 식문화관

미케쓰쿠니 와카사 오바마 식문화관은 오바마시의 음식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의 발전을 목적으로 2003년 9월에 개관했습니다. 고대부터 오바마는 천황에게 와카사의 해산물과 소금을 바치는 미케쓰쿠니의 중심지였으며, 이후에도 교토로 해산물을 운반하는 고등어길의 출발점으로 번성했습니다. 이곳은 이런 향토음식의 역사를 통해 마을 조성을 주도하는 시설입니다. 1층의 박물관에서는 일본의 대표 음식인 ‘스시’를 비롯한 오바마의 향토요리 등을 재현한 복제품을 전시해 음식의 역사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에서 교토까지 고등어를 운반한 ‘고등어길’ 게임, 전통적인 일본 상가 건축을 재현한 모형, 신선한 지역 식재료를 사용해 만드는 요리체험(예약 필수)을 할 수 있는 키친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전통공예를 테마로 한 2층의 와카사 공방에서는 와카사 화지(일본 종이), 와카사 옷칠 젓가락, 와카사 마노 세공 및 음식 모형 제작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장인의 제작 실연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며 가까운 기념품 가게에서 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관 3층에는 와카사만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공중목욕탕이 있습니다. 별관에는 와카사 오바마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하마노시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식문화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역 생산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어업과 농업을 지원해서 강과 바다와 같은 귀중한 천연자원의 보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먹거리 교육의 장과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생선 손질법과 일식 요리를 만드는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리교실에서는 음식에 대한 이해와 지역산 식재료 사용과 몸에 좋고 균형 잡힌 영양가 풍부한 식사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바마시는 지역 음식의 전통을 지키고 젊은 세대를 가르침으로서 소중한 향토요리의 미래를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